



보 도 자 료

2015년 7월 23일(목) 배포시점부터
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3년의 혁신,
30년의 성장

문의 : 이용자정책국 이용자보호과
이용자정책국 이용자보호과

양기철 과 장(☎2110-1540)
오승교 주무관(☎2110-1542)

제공일: 2015. 7. 23.(목)

해외에서 휴대폰 분실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!

- 방통위, '로밍서비스 바로알기' 캠페인 실시 -
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최성준)는 해외에서 안전하고 알뜰하게 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(KAIT)와 함께 동영상 배포, 가두 캠페인, '해외로밍 가이드' 앱 홍보 등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한다.

특히, 이번 캠페인에서는 해외에서 휴대폰을 분실한 후 고액의 통화 요금이 청구되는 등 로밍통화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휴대폰 분실시 대처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.

방통위는 휴대폰을 분실한 뒤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휴대폰에 암호를 설정해 놓아도 USIM카드를 다른 휴대폰에 삽입하면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며, 자신의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면 해당 통신사 로밍 센터로 즉시 분실신고를 해서 음성로밍 요금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.

※ 통신사 고객센터 : SKT(153-112, 무료), KT(1588-0608, 유료), LGU+(1544-2992, 유료)

그간 통신사는 데이터 로밍시 과다요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'데이터 요금상한제(월10만원)' 부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, 음성통화의 경우 이용자가 휴대폰 분실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요금피해가 우려되었다. 그러나 금년에는 통신사 별로 음성로밍 요금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음성통화에 대한 요금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.

< 음성로밍 요금과다 피해 방지방안 >

구 분	서비스명	내 용
SKT	T안심로밍 서비스	휴대전화 분실 신고 시 24시간 이내 발생요금 전액 면제, 24시간 이후 발생요금 30만원 초과 금액 면제 ※ 현지 → 한국으로 가는 음성통화의 경우 정상사용으로 분류
KT	음성로밍 안심 차단	음성 및 문자 로밍요금 월 50만원 초과 시 차단(4개국)
LGU+	로밍 폭탄 보험 서비스	휴대전화 분실 24시간 이내 신고 및 정지요청 시 30만원 초과 금액 면제 ※ 현지 → 한국으로 가는 음성통화의 경우 정상사용으로 분류

국내 정액요금제의 경우 해외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이용자가 많은데, 해외 로밍요금은 국내 요금제와는 별도 적용되어 최대 200배 비싼 로밍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.

※ 로밍데이터 비용은 약 7~9원/1KB으로 사진 1장(약 1.5MB)의 경우 1만원 수준

또한, 스마트폰에서 어플리케이션(APP) 자동 업데이트, 이메일 자동 수신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자신도 모르게 과다요금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.

특히, 알뜰폰(MVNO)의 경우 별도의 정액로밍 요금제가 없어 사용한 만큼 요금이 부과되므로 사전에 데이터 완전차단 부가서비스를 신청하거나, 스마트폰의 데이터로밍 차단기능을 활용하여 요금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.

< 스마트폰 데이터로밍 차단기능 >

구 분	차단 방법
IOS	설정 ► 셀룰러 ► 데이터로밍 비활성화
안드로이드	환경설정 ► 네트워크 더보기 ► 모바일네트워크 ► 데이터로밍 비활성화

방통위 관계자는 “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, 해외에서 스마트폰 분실 및 요금 과다청구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”고 말하고, ‘해외로밍 가이드’ 앱을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. 끝.